

##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 34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니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창간호부터 전부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국회의원 일본의 독도주장 왜 묵인방조하나요?



독도 이상훈 회장

독도는 우리 땅 모든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일본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교육위원들이 독도 방문을 항의하며 어찌서 한국 땅이냐고 따지는 항의서한을 뜯어보다 말고 큰 봉투에 싸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뉴스를

듣고 당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도 못 하고 독도소식지를 만들 자료를 찾다가 독도주인인 국민들이 아시도록 몇 줄 써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왜 우리 땅 인가를 역사적 근거나 국제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그 답을 못 한단 말인가? 몰라서 못 하는가? 알고도 안 하는가? 문제는 일본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면 독도를 진짜 일본 땅으로 알 여려가 많은 것이다. 왜 일본 국회의원의 질문에 한국국회의원들이 대답을 못 하면 외국인들은 일본 땅으로 생각 할 것이다. 국제 법에는 묵인을 하면 불리하다는 국제법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우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일이 반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일본이 2월22일 독도 날 행사를 하면 묵인하지 않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 독도 날을 규탄하는 행사를 독도단체들이 하는데 왜 국회교육위원들이 묵인을 하는가? 국회교육위원들이면 왜 우리 땅인가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알도록 교과서에 수록해서 가르치고 왜 일본이 주장이 엉터리인가? 를 확실하게 교과서에 수록해서 가르치도록 해야 할 국회교육위원들이 일본국회의원들이 왜 한국 땅이냐는 질문에 답도 안한 것은 묵인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질문을 국회에 보내서 답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부산 AEPD 때는 독도한국 땅 홍보 현수막을 경찰은 빼앗고 독도 한국 땅이라는 10개국 전시물도 국제공항에 전시 못하게 하는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정치인들은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한다.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 후원금 주신 분

x호철	부산시동래구사직2동쌍용에가	10,000원
이순옥	통일을 실천하는사람들	20,000원
김주호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50,000원
택 시	손님들 조금씩 주신돈	50,000원
임영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0,000원

## 국회의원들이 일본에서 온 12통의 독도 방문 항의 서한을 그대로 반송했다

2018년 12월 26일 11시 17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2월 26일 11시 18분 KST

일본 측이 10월 22일 독도를 방문한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10월 22일 독도를 방문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지난 11월 26일 독도를 방문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 측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원 연맹' 측의 항의 서한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소속 중의원이자 이 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신도 요시타카 등은 12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국회의원 측이 반송한 편지를 공개 의원연맹은 지난 10월 22일 독도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에게 "독도 방문을 용납할 수 없다"며 독도가 한국 측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

이날 신도 씨는 "11월 26일, 한국 쪽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이름으로 우편물이 돌아왔습니다"라며 "이 큰 봉투 안에 넣어서 돌려보냈다. 봉투가 뜯겨 있지만, 이대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신도 씨가 대표로 있는 일본 의원연맹에서 보낸 항의 서한을 한국 쪽 국회의원들이 일부는 뜯은 채로 하나의 큰 봉투에 담아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보낸 13통의 편지 중 10통은 봉투를 뜯은 채로, 나머지 2통은 봉투가 없이 반송됐으며 다른 1통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도 씨는 이날 "11월 26일은 한국의 중학생들이 다케시마(독도를 부르는 일본식 이름)가 '한국령이다. 일본 교과서는 거짓말을 가르친다'라며 41통의 편지를 보낸 날과 묘하게도 같은 날"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조치원여중의 학생들은 지난 11월 '독도의 날'을 기념해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한 학교에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 "일본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41통의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시마네현의 중학교가 이들의 편지를 받은 날이 11월 26~27일이다.

신도 씨는 이를 언급하며 "한국의 아이들은 역사적 근거나 주장이 틀리긴 하지만, 일본 쪽에 이를 직접 전달하려 했다.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일본의 질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독도는 한국의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신도 씨는 "한국의 중학생을 본받아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어떤 형태로든 답장을 해주시면 우리도 성의껏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세회 뉴스 에디터, 허프포스트코리아 sehoi.park@huffpost.kr

## 일본의 언론에 난 일부입니다.

한국의원은 아이들 본 받아라.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라. 일본영토수호 행동하는의원들 반송된 우편물

キャプション

竹島問題「韓国議員は子どもたちを見習え！」質問状への「誠意なき」対応にあきれ声も

다케시마 문제 "한국 의원은 아이들을 본 받아라!" 질문 장에 "성의없는 대응에 질린 목소리도"



日本の領土を守るために行動する議員連盟の会見 (12月25日)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의 회견 (12월 25일)



送り返されてきた質問状 返されてきた質問状 반송되어 온 질문 장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울릉군수에게 독도를 관리를 명령문을 만들었다. 임금의 명령은 칙령이고, 칙령은 국제 법으로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선포한 것이며 각국에 알렸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칙령의 날"이다. "독도의 날"이라고 하면 국제 법과 칙령이 가려진다. 꼭 "독도칙령의 날"이다.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설 준비로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

## 일본 “독도 날” 침탈야욕 규탄 및 독도사수결의대회

◎일시: 2019년 2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

◎주최주관: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랑문화회, 독도정책연구회.

참가단체: 함독도사랑회, 독도척령기념사업국민연합회, 한국독도문화학자협회, 한일문화연구소, 대한민국상훈회, (사)대한민국역성국민운동본부, 독도의병대, 독도연합총본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부산본부, 글로벌독도본부, (GPF)부산지회, 한국아리랑 문화회, (사)안동북정군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승모회, 국제메디칼소버지협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부산지부, (사)대한민국독도수호경호경비대, (사)3.1동지회, 독도문화예술협회, 세계신도경제연구회, 민족역사복보학회, 대한민국 3.1애국청년단, 한국환경텐트디자인학회, 독도사랑협동조합, 대한민국독도수호세계연맹, 한국독도사랑문화협회, 독도사수대, 독도항우회.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소장님 시마네현은 日 정부도 몰래 독도편입 설명



서울에서 오신 독도척령기념사업회 조대용 회장님 성명서 발표



멀리 인천에서 규탄행사 참석하신 본회 홍보대사 서희가수님



참석자 여러분 애국자입니다. (뒤에 찍히지 않은분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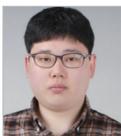
독도이상훈 행사취지, 우명주회장 시낭송, 신옥균회장 규탄사, 최하영회장 사회, 안태봉회장 규탄사, 정승복대표 인사, 함독도현수막, 방송차 태극기.



일본 “독도 날” 침탈 야욕 규탄 및 독도수호결의대회를 부산에 있는 독도단체가 하도록 집회신고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이니 나는 참석만 하려고 집회신고도 않고 있으니 모처에서 집회안 하느냐? 질문이 왔다. 아마도 다른 독도단체가 신고하고 할 것으로 생각 했는데 내가 가만있으니 아무도 할 단체가 없는 것 같다. 부산서 앞장서서 독도에 신경 쓰고 집회 할 단체가 없는가?

싫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같이 행사를 한 장 회장에게 연락하니 금년은 빠지겠다. 독도에 열심이라는 김 총재에게 물어보니 3.1운동 행사에 바빠서 일본 “독도 날” 침탈 야욕 규탄 및 독도수호결의대회를 못 한다고 한다. 그래서 급히 집회신고를 하고 아는 시민단체들에게 연락하여 행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부산지부”회원님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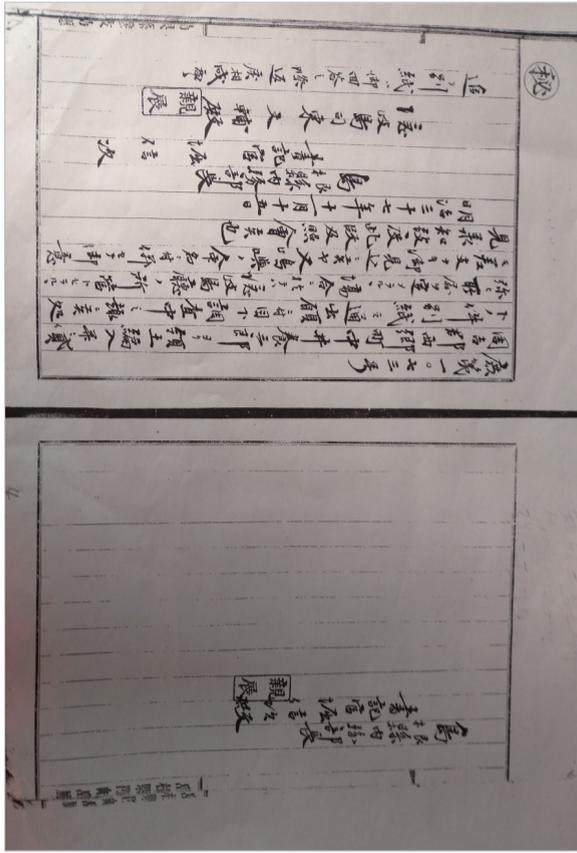
**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학술고문	협력고문	고문	고문	고문	자문	자문	홍보대사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김영구교수	황성일 회장	곽현욱약사	송정숙여사	박노분 여사	문병준 교수	임기병 교수	가수 서희	독도 이상훈	김영희여사	윤예준의장
사이버국장	홍보위원	서울지회장	충북지회장	경기지회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전기훈	장태현사장	박관영	한명석소장	한채훈	백미경	김석순회장	김필이여사	박대희이사	이광호	

# 일본정부도 모르게 영토편입 한 일본지방 시마네현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한일간 독도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시마네현 독도박물관에서 발견했다.

번역본 →



★ 영토편입은 지방 정부가 하는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다.

독도 침탈은 일본어부 한사람이 독도를 죽도라 하고 편입 서류발견

한사람의 어부의 요청으로 독도를 빼앗고 러일전쟁에 승리와 한일강제 합병, 목적을 빼앗기 위한 국력으로 갔다.

2월22일은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시를 관할에 급년에는 더욱 기세를 부르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러일 전쟁 전 독도에 와서 밀업종하고 물계를 잡아 수인을 올린 나가이 요사부부(中井兼三郎)은 이번에 발견된 문서한 장을 상부에 보내 독도는 일본영토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만 나와 이가 요청한 것을 일본도 인정하고 「다케시마의날」을 선포했다.문서 한 처음 문과 같은 것이다. 아래 문서를 보려는

서체 (熊鷹) 周吉郡 西郷町 에 나가이요사부부부의 영토 편입 하고 대어해할 것을 별지와 같이접수하고 조사 중에 있는데 그와 같이 함 경우에 오지청(腰較廳)소관으로 해야될지 또는 도청 명칭을 어떻게 해야될지 조회합니다.

明治 37년(1904년)11월15일

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호리 노부지 (堀信次)

隱岐島司 比古사후미호(東文輔)

요청서류와 내역은 회담시 다시 보낼

이리되어있다.

그리고 비밀 도장도 찍어있다. 이문서는 지난해 시마네현청 죽도 사료 관에서 어떻게 인수했다.

독도를 죽도라 하고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시를 국력으로 나갈 때 이렇게 해서 독도를 일본영토라 하고 있다고 이문서를 이번에 보도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독도는 원래조선영토라하고 일본영토로하는 청구내역서류 5장도 가지고있다동시에 보도하도록하겠음 연락처 김문길 한일 문화연구소 소장 010-3560-7855

Scanned with CamScanner

#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는 것을 알면서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까지 몰랐고 지금 알았다면 이제부터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십시오. 할 줄 모른다면 회원이 되시고 시간이 없다면 회비만 내든지 후원금을 내시면 독도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활동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 후원, 활동 전부터 하시는 분은 더 큰 독도 지킴이 됩니다. 010-6504-6510. ds5ean@naver.com

# 일본 시마네현 여론, '독도에 관심 있다' 67%

조영삼 기자 / op0056@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의 전초기지 격인 시마네현에서 최근 실시한 독도관련 여론조사에서 "독도에 관심 있다"가 67%로 나타났다.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결과는 전년 대비 4%p 증가한 것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시마네현민의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수율은 약 57%인 1천145명이였다. 항목은 '독도문제를 비롯해 기쁨 일상생활 등' 7개 항목이였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다'가25.2%, '다소 관심이 있다'가 42.7%로 '독도에 관심 있다' 전체는 67.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치는 전년도 대비 3.8%p가 증가했다. 또 '다케시마' 문제의 배경과 경위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가 66.3%로 3명 중 2명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른다"는 32.5%에 불과했다. 이밖에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마네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응답이 40% 가까이 됐다. 이에 대해 독도 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불과 이삼십년전만해도 일본 대다수 국민들은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내외에 독도홍보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삼 기자 / op0056@hanmail.net입력 : 2019년 1월 25일

#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은 뺏으려고

위와 같은 자료도 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일본 자료도 많다. "1690년대 일본의 에도 막부와 쓰시마(쓰시마) 도주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 일본인들의 도해(渡海)&#8231;바다를 건너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 "명치유신(메이지유신 · 1868년)' 후에도 일본은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조선의 것. 하야시 시헤이는 1785년 경 조선,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일본

육군참모본부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 "1905년 이후 일본에서 발행된 '한국수로지(1980년)', '조선연안수로지(1923년)', 그리고 1951년 일본 학교 교과서용으로 출판된 현대지도 등에 독도가 조선의 섬. 자료는 이렇게 많으나 일본은 독도문제 엉터리 조작하여 우리 국회의원에게 한국 땅인 이유를 말하라 해도 답도 안하고 질문지를 그냥 돌려보내니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게 당할까? 국민모두 일어나라.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명	주소	주요사항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받은 이름 전화 )  
 네이버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 010-6504-6510  
 보낼 곳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온천동부원A) 독도이상훈 우편 47825  
 서명받은분 명단은 박물관에 영구보존되고 100명이상 서명받은 분은 증서를 드립니다.

## 北 노동신문 “日, 독도 강탈 야망은 망상...큰코 다칠 것” 비난

입력 : 2019년02월13일 10:09 수정 : 2019년02월13일 10:09

고노 다로 日 외무상, 최근 연설서 다케시마는 日 영토’ 주장. 北 노동신문, 13일 ‘정세론 해설’ 서 日 강도 높게 직설 비난 “日 과거 문헌·기록서 독도를 한국 땅 이라고 인정했는데...” “독도 강탈 야망 버리지 않으면 큰 재앙 당할 것” 경고 눈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고노 다로 日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북한이 ‘히스테리적인 광기’, ‘망상’ 등의 표현을 통해 맹비난을 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3일 ‘독도 강탈 야망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이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겨대며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데 이는 신성한 우리 영토를 타고 앓으려는 날강도적인 망발”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중의원에서 외교연설을 하고 있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日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8일 고노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케시마(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노동신문은 이 같은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매체는 “일본 외상 고노가 국회 외교 연설이라는 데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늘어놓고 마치 일본의 땅을 남이 법적으로(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환기시켰다”고 밝혔다.

지면상 이하 생략 아래 기자님 죄송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 독도소식지 34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日언론, 한국의 독도 해양조사 쟁점화 시도

입력 2019.02.19 09:11

한국 해양조사선이 지난 15일부터 독도 주변을 항행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해양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로 항행 목적 등을 문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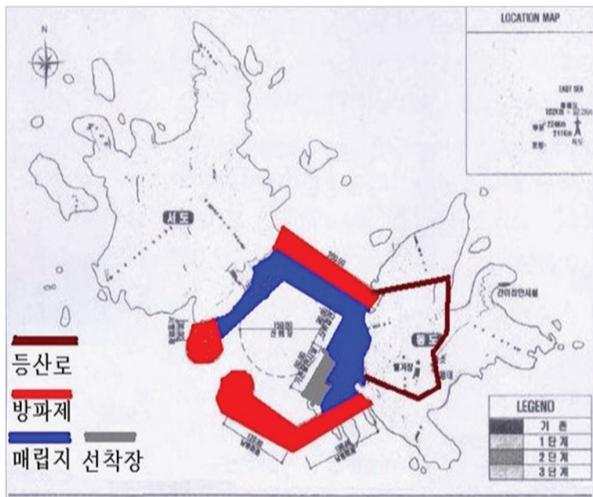


이는 외무성과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해당 해양조사선이 한국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 21'이라며 와이어나 기기 투입 등 해양조사를 의심할 만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로 “영해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전했다. 현장 주변에선 일

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해 내의 무해하지 않은 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해양조사선은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지난 15일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에 침입했다”며 “매년 2월 22일 열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퇴거하지 않아 실효지배를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했다. 현측은 지난 2005년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로 만들고 그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한국 당국이 수년 전 독도 인근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채니(採泥·진흙 채취) 등 해저에서 조사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그간 발표된 한국 측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탐사 등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조사를 “(국제)조약상의 동의 없는 (무단) 조사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렇게 독도 개발해서 마을만들자!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큰 섬이 두 개다. 두섬의 거리는 약 170m이다. 붉은 것을 방파제로 하고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를 만들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살게 하자는 개발안이다. 지금은 독도에 체류시간이 30분이다. 4~5시간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 독도선착장을 만드신 강창희 회장님의 방파제 개발안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1. 방파제를 만들면 파도가 있어도 접안 된다.
2. 등산로를 만들어 동도정상에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내려오는 길은 북쪽 방파제 쪽에 별도로 만든다.
3. 독도를 어업전진기지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
4. 서도에 10가구동도에 10가구정도 살게 한다.
5. 학교가 없으니 50~60대가 살면 된다.
6. 서도 어민숙소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생태계 보존한다.
7.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 하니 개발하여 사람이 살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사연 )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성별	사진
연락처	이메일		
	자택전화		
주소	휴대전화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도사수연합회 귀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우편번호 : 49384  
TEL : 051-466-8761, FAX : 051-206-8761,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